'독' 그것은 민족문화의 상징

도립미술관 '현대미술사전, 키워드'
이건용 '독 속의 문화' 퍼포먼스

우리민족 고유 문화 손상한
근대화 · 서양화 씻어내는 의미로
'독' 이라는 물건을 사용

전북도립미술관은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현대미술사전, 7 키워드' 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 모노크롬의 이우환, 퍼포먼스의 이건용·이강소 등 걸출한 기념비적인 미술가의 작품 면면을 엿볼 수 있다.

미술관은 전시와 관련,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선사하고자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참여 미술가 이건용의 '독 속의 문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독 속의 문화는 이건용 미술가의 외고조모부터 물려내려온 200년 된 '독'을 이용한 퍼포먼스. 이는 1989년 서울 동숭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동방으로부터의 제안' 전에서 초연됐으며, 한국 최초의 페미니즘 퍼포먼스로 기록된다.

이번 퍼포먼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은 우리 고유 전통장르 해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비롯됐다.

작품은 일제 강점기 남자들이 독립을 위해 밖으로 나가 싸우는 동안 집안을 지키고 가정의 장맛을 지킨 것은 여성들이었음을 상기한다. 여성과 여정을 함께 한 '독'은 우리 생활의 전면이 아닌 집 뒤뜰 후미진 곳에 자리하며, 가족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매개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퍼포먼스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손상한 근대화·서양화를 씻어내는 의미로 '독' 테두리에 비누거품을 묻히고 씻는다. '독' 안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역대 모계의 조상들을 불러낸다. 마치 김칫독에 빠진 것처럼 '독' 안에 들어가서 근대화 과정, 6·25 전쟁 때 피난 가는 이야기 등 민족사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건용 작가는 자연의 생목과 흙, 로프, 천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주로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후엔 사진, 드로잉, 언어 행위 등을 통한 타자와의 소통에 주목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2018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양성평등 분야 주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올 사업 방향

의식 확산 위한 '특강' 포함
콘텐츠 공모 등 다방면 지원
젠더문화축제로 성평등 확산 도모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문화사업 · 네트워크사업 등도 펼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올 한 해 양성평등·교육·취업·문화·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여성 및 가족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센터는 양성평등 분야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정착이 양성평등의 원동력이란 생각에서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특강'을 비롯한 시·군여성회관 강사의 성인지적 및 역량강화교육, 여성인재아카데미,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스쿨 프로그램을 신설, 멘토링 지원과 경력관리로 리더십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는 양성이 조화로운 제7회 젠더문화축제를 개최해 성평등 확산을 도모, 미래여성의 가치를 발굴하고 양성의 다양성도 함께 조명할 계획이다.

일반교육과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연계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기반 확보를 돕는다.

문화사업은 센터 1층 '소소담'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 작은 음악회와 미니 콘서트 등을 선보인다.

센터는 지역 여성리더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도 이어간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열리는 전북여성화요간담회와 전북지역 여성회관장 협의회 등을 통한 핵심의제 발굴 및 협력사업을 공유 여성거점기관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는 11월에는 센터 설립 50년을 기념한 특별사업 '전북여성의 희망을 말하다'를 진행, 기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이윤애 센터장은 "여성의 권리가 일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 이에 센터는 성평등한 사회구축과 여성능력개발, 경제활동을 통한 여성의 권리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보호대상자 ·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 기회 제공

안전사회문화운동본부 공식 출범… 한웅 본부장 "어려운 이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 기울일 것"

안전사회문화운동본부가 29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안전사회문화운동본부는 보호대상자(출소자)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비영리 단체다.

출범에 앞서 한웅 안전사회문화운동본부장은 "운동본부 공식 출범을 통해, 우리 지역 안전문화 형성과 불우 출소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과 (사)황실문화재단 이석 총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위원연합회장인 한 웅 본부장을 주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해 제1회 전북사랑 아름다운 동행 송년콘서트 개최 등 출범과 관련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어린이 그림공모' 진행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신청접수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소리축제 그림공모 주제는 '소리판타지'로, 소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세계를 독창적이고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해 표현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며,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전국의 미취학 아동을 비롯해 초등학생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교육감상이, 최우수상을 비롯한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들에겐 상장과 문화상품권 등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입선 이상의 수상작은 어린이 체험전시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